



유통구조 개선과 질병퇴치를 가장 큰 선결과제로 지적

- 종계 · 부화업 84.2% 허가제로 전환해야 -

◇ 정리 / 김동진 기자
(dj@poultry.or.kr)

본고는 최근의 양계산업의 당면현황에 대한 양계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차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지표를 삼고자 지난 2월 22일 본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의 양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03명으로 전국에서 모인 양계인들인 만큼 전체 양계인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채란인이 5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육계인이 30명(29.1%), 종계 · 부화인이 17명(16.5%), 기타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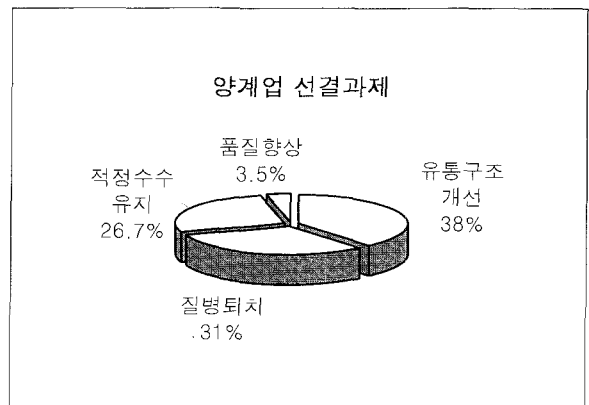
- 편집자주 -

1. 양계업에서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는?

지난해 양계산물 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은 시세를 유지하면서 양계인들에게 안정을 가져온 한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계의 과다입식으로 금년 다시 불황을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양계인들이 느끼는 양계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통구조 개선(38.8%)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질병퇴치(31%), 적정수수 유지(26.7%), 품질향상(3.5%) 순으로 나타나 유통구조 개선과 질병퇴치가 양계업계

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잉생산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수 유지와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분야별로 볼때 육계인들은 육계인 응답자중 52.9%가 유통구조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으며, 채란인들중 38.3%는 적정수수유지를, 종계인중 38.9%는 질병퇴치를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해 분야별 쟁점사항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뉴라운드에 대해서?

뉴라운드에 대한 질문에서는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으며, 잘안다 28.1%, 모른다 14.6%로 각각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5%에 해당하는 양계인들이 뉴라운드에 대해서 들어보았거나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15%에 해당하는 농가는 뉴라운드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주어 수입 개방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뉴라운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미 WTO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5년부터 적용될 농축산물 생산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 등이 논의되어 결정되는 협상인 만큼 양계인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3. 양계산물 수입억제 방안은?

앞으로 수입증가가 지속적으로 예견되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양계산물 수입억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중 59.5%가 검역강화에 답변을 주었으며, 상품개발(20.7%), 생산비 인하(13.5%), 등급제 시행(4.5%),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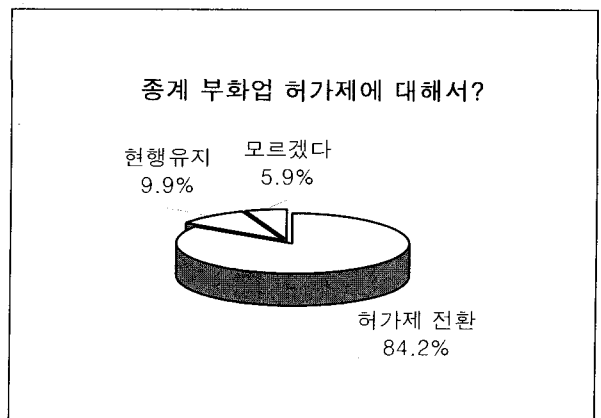
항목에서는 인플루엔자 등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소지가 있는 질병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8,500여톤의 닭고기(냉동)가 수입되는 등 날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성, 질병문제 등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도 외국의 사례를 볼때 자주 나타나고 있어 수입규제를 위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4. 종계·부화업 허가제에 대하여?

종계·부화업 허가제에 대한 질문에는 허가제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84.2%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처럼 신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9.9%, 모르겠다는 의견은 5.9%로 나타났다.

지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종계·부화업이 허가제, 등록제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신고제로 바뀐 바 있다.

그러나 이 결과 일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종계가 사육되어 병아리가 판매되다 보니 질병관리가 미약하고, 생산수수 조절이 어려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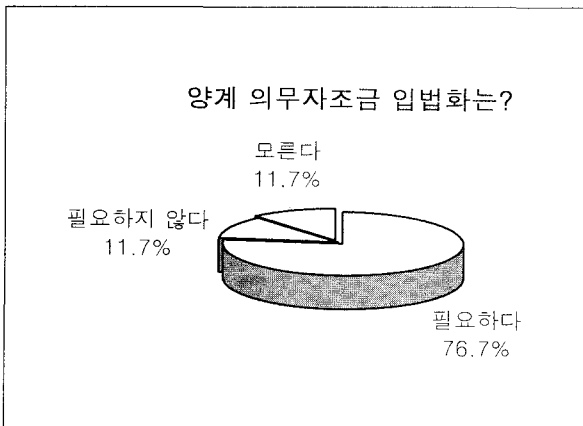


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과거처럼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채란인들중 90.7%와 육계인들중 87.3%가 허가제를 원하고 있는 반면, 종계·부화인들의 64.7%만이 허가제를 원하고 있고, 23.5%는 현행처럼 신고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어 대조를 보였다.

5. 양계 의무자조금 입법화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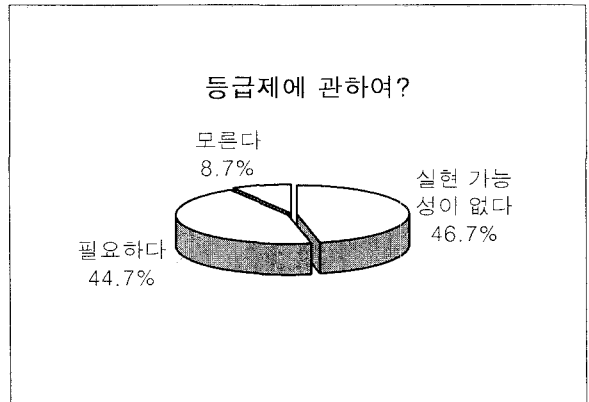
양계 의무자조금 입법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 모른다는 의견이 각각 11.7%로 나타났다.

이는 양계농가가 그동안 자조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조금 거출 방법, 무임승차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자조금 참여율이 낮았으나 의무자조금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양계인들이 참여하여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무자조금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 상반기 내에 정기국회에



서 법안이 다루어져 통과될 경우 양계업계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6. 등급제에 관하여?



채란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부터 계란 등급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는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양계인들이 느끼고 있는 등급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전체 양계인을 대상으로 집계된 결과를 보면 국내 실정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이 46.6%, 필요하다는 답변이 44.7%, 모른다는 답변이 8.7%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놓고 볼때 양계인들은 등급제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채란업의 경우는 채란인중 66.7%가 국내 실정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주었으며, 25.9%만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주었다. 반면, 육계인들은

60%, 종계인들은 82.4%가 등급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어 채란인들과 대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란업계는 계란등급제가 시범사업으로 이미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거부감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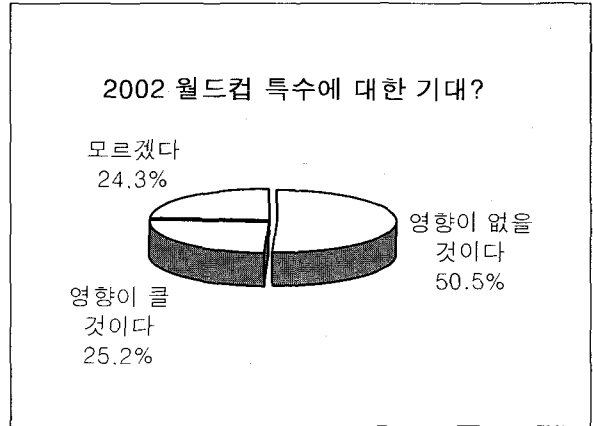
7. 양계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는가?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여러 방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계인들은 양계정보를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잡지(29.2%), 신문(24.8%), 컴퓨터(인터넷)(23.0%), 팩스정보(12.4%), 기타(10.6%)순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는 잡지나 신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2002 월드컵의 특수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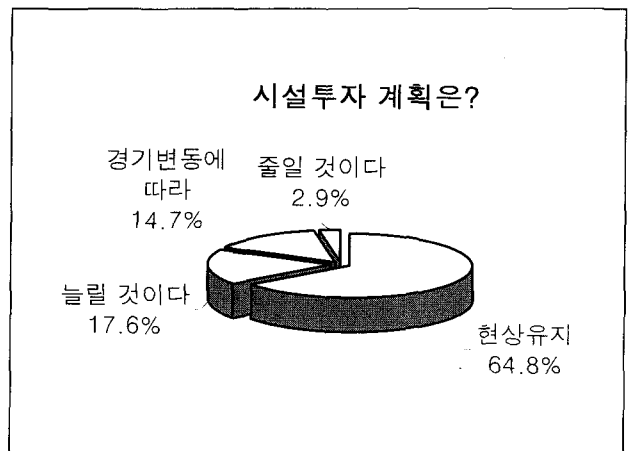
오는 5월 31일부터 1달간 일본과 공동 개최되는 2002 FIFA 월드컵 개최시 양계산물에 대한 특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양계인이 50.5%,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하는 답변은 25.2%, 모르겠다는 답변은 24.3%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50%가 넘는 양계인들이 월드컵의 특수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때와 마찬가지로



큰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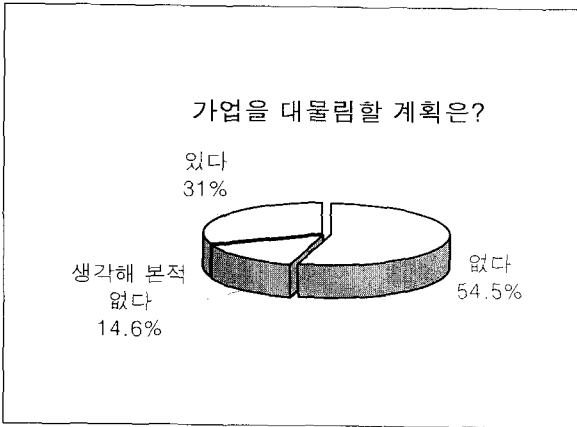
9. 앞으로 시설투자 계획은?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현재보다 시설을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상 유지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늘릴 것이다(17.6%),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14.7%), 줄일 것이다(2.9%)라는 답변을 주어 대부분의 농가에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나, 줄일 것이라는 답변보다 늘릴 것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



와 아직도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양계업을 가업으로 대물림할 계획은?



질문에 대해서는 54.5%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양계인도 31%나 되었다. 또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14.6%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2세 양계인들이 대물림하여 업을 이끌어가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질문은 앞으로 양계업을 2세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양계업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54.5%에 해당하는 농가가 대물림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 31%의 양계인들이 2세에게 대물림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과거보다 양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대물림할 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는 종계인이 47.1%로 가장 많았으며, 채란인이 27.8%, 육계인이 26.7%로 각각 나타났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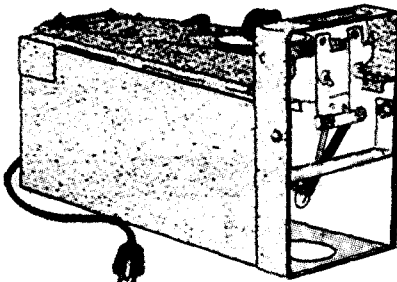
양계업을 가업으로 대물림할 계획에 대한

보령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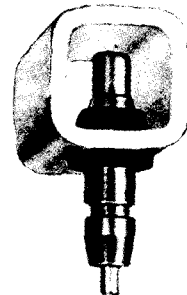
◎고품질 ◎저렴한 가격 ◎국산품 입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넙 폴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개발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화 : (02)461-7887 (주·야)